

1.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②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 ③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④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정답: ②

*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

- 구석기 시대는 편석기를 사용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만능도구인 주먹도끼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나무 열매나 식물 뿌리를 채집하여 먹거나 편석기(예: 초기-만능 도구인 주먹도끼, 후기-슴베찌르개)로 만든 창이나 활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였으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①, ④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고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났다. 또한 식량을 저장하는 토기가 처음 나타났고,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이다.

③ 철기 시대에 들어서(또는 청동기 후반기) 한반도에서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기존의 비파형 동검(요녕식 동검)을 넘어서 독자적인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⑤ 쟁기, 호미, 괭이 등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 이후 처음 사용되었다. 4, 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고 6세기에 이르러 널리 사용되었다.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방의 여러 성에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습니다.
- ②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 ③ 한(漢)과 진국(辰國)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습니다.
- ④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 ⑤ 부왕(丕王)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습니다.

정답: ③

* 위만 조선의 역사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BC 3C 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진.한 교체기인 기원전 2세기경, 서쪽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유이민 세력인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시기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주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 한반도 남부 지방에 위치한 진의 여러 나라와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부강해졌다.

고조선이 강성해지면서 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커가자, 한은 대군을 보내어 수도인 왕검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은 막강한 한의 대군을 맞아 1년 동안 버티면서 잘 싸웠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은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①, ② 고구려는 귀족회의인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고, 지방은 176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중 62개 성이 큰 성으로서 대성에는 '육살', 중성에는 '처려근지'(도사), 소성에는 '가라달'과 '누초'가 성주였다.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라가 작아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예속되었다. 고구려는 그 [지역 사람] 중에서 대인(大人)을 두고 사자(使者)로 삼아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또 대가(大加)로 하여금 조세를 책임지도록 하였고, 맥포(麥布)·어염(魚鹽) 및 해산물 등을 천리나 되는 거리에서 짚어져 나르게 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나)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 낙랑의 단궁이 그 지역에서 산출된다.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나며, 땅은 기름지고 무늬 있는 표범이 많고, 과하마가 나온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가) - 혼인 풍속으로 민머느리제가 있었다.
- ② (가) -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여 책화가 있었다.
- ③ (나)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④ (나)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 ⑤ (가),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정답: ①

* 옥저와 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가)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머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특산물은 소금으로 고구려에 예속되어 조공으로 바쳤다.

(나)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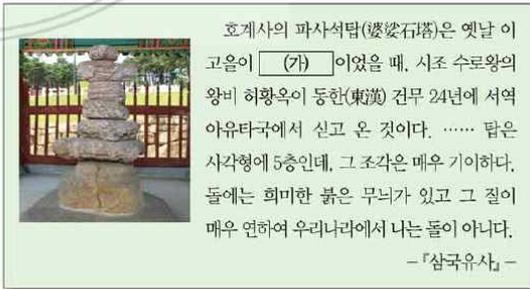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대가(大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기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④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제정분리).

⑤ 부여와 고구려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다(1책12법).

4.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②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 ③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④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 ⑤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정답: ①

* 금관가야에 대하여

- 금관 가야(42년 건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은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인 허황옥과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서 국가조직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에 가야는 연맹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가야는 전신인 변한 시대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고, 철이 많이 생산되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특히,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400)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 연맹이 붕괴되었다.

이후 가야 연맹은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에 의해 모두 복속되었다(532년 금관가야 멸망, 562년 대가야 멸망)

②, ⑤ 신라는 초기 이사금 시대에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귀족 회의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화백회의가 있어 왕권을 조절·견제하기도 하였다,

③ 고구려는 고국천왕 대에 실시된 봄에 곡식을 쪼개고 가을에 갚게 하는 진대법(194)이 있어 빈민을 구제하였다.

④ 백제 웅진 시대의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5.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 ②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④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정답: ⑤

* 신라 지증왕의 업적

신라는 지증왕(500~514)대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503).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주·군제 실시, 소경 설치),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사회·경제적으로는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실시하였으며(502),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509).

① 경주에 소재한 첨성대(국보 31호)는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 천체 관측을 위해 세운 건축물로 여겨진다.

②, ③ 신라 진흥왕은 마지막 가야인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고(562), 거칠부를 시켜 역사서인 국사(545)를 편찬케 하였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④ 신라의 중앙집권을 완성한 법흥왕(514~540)은 신라 최초로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536).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무리를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화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하였다.

- 「삼국사기」 -

(나) 계필력력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밖에 도착하였고, 이적의 군사가 뒤따라 와서 한 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하였다. …… 남건은 성문을 닫고 항거하여 지켰다. ……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열었다. …… 남건은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찔렀으나 죽지 못했다. [보장]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

- 「삼국사기」 -

- ① 당이 안동도호부를 요동 지역으로 옮겼다.
- ②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 ③ 신라가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 ④ 고구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 ⑤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정답: ②

* 삼국통일의 과정

나.당 동맹(648)을 체결하였던 김춘추가 무열왕이 즉위하며 통일 전쟁은 본격화 되었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과 소정방이 이끈 당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다.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당군과 함께 사비성을 함락하였다(660).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 문무왕(661~681)과 당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잘 방어하였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데다가, 연개소문 사후 권력다툼이 벌어졌다(남생<->남건·남산). 이 기회를 틈타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한편, 백제는 복신과 흑치상지(임존성), 도침(주류성) 등의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내분으로 실패하고, 왜의 원군이 백강에서 크게 패하며 실패하였다(663). 고구려도 검모장(한성), 고연무(오골성) 등이 유민들을 이끌고 부흥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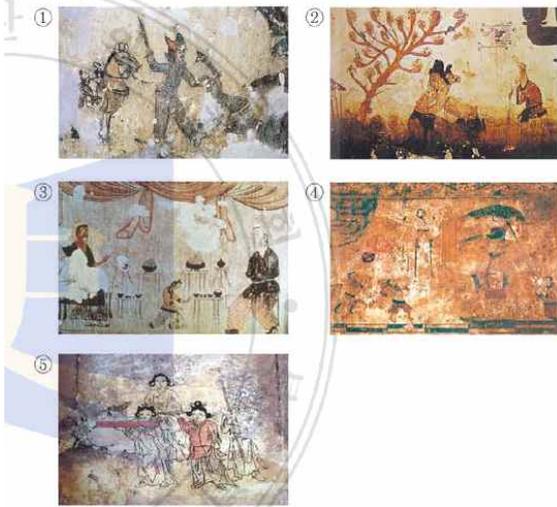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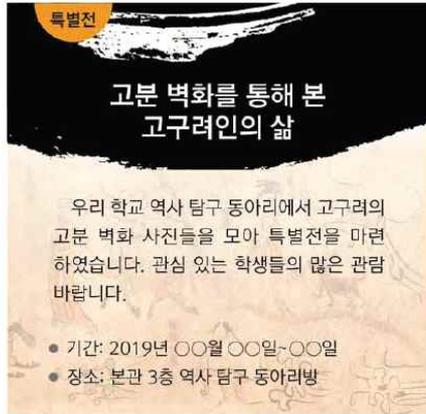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웅진도독부(660)와 안동도호부(668)를 설치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도 계림대도독부(663)를 설치하여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먼저, 백제의 옛 땅을 찾기 위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왕족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임명하고(670),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674). 아울러, 신라군은 당군이 주둔하고 있던 사비성을 함락하여 웅진도독부를 없애고, 백제의 옛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 후, 당군은 말갈군과 거란군을 앞세워 계속 침범하자 신라는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치고(675),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자, 당은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게 되며 통일이 이루어졌다(676).

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영류왕~보장왕 때에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631~647)

7.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정답: ⑤

* 고구려의 고분 벽화

고구려인들은 굴식 돌방무덤에 많은 고분 벽화를 남기어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중국 길림 집안(국내성) 지역에 소재하는 통구 12호분의 '적장참수도', 무용총의 무용도(의복을 잘 보여줌), 수렵도(고구려의 상무적 모습), 접객도(귀족과 하인의 모습의 크기 차이), 각저총의 씨름도(서역 인물의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평남 강서 수산리 고분의 '교예도(신분에 따른 인물 크기 차이)', '귀부인도'(일본 다카마쓰 고분 벽화와 유사)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① 통구 12호분 '적장참수도'
- ② 각저총 '씨름도'
- ③ 무용총 '접객도'
- ④ 수산리 고분 '교예도'
- ⑤ 박익(1332~1398) 묘의 벽화(경남 밀양)

8.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성주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함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모두 죽이고 품석의 목을 베어 왕도(王都)에 보냈다.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서쪽 지방의 주·현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삼국사기」-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어로 고쳤다.
- ③ 수와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 ④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 ⑤ 계백의 결사대를 보내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⑤

* 백제 의자왕에 대하여

의자왕(641~660)은 무왕(600~641)의 아들로써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초기에는 어진 군주였으나(해동증자), 즉위 초부터 선덕여왕(632~647)의 신라를 자주 공격하여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642).

특히 윤충을 시키어 함락시키어 죽인 대야성의 성주 부인은 김춘추의 딸이었기에, 분노한 김춘추는 복수를 위해 고구려와 동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죽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는 연개소문에 의해 감금당하였고 간신히 탈출한 뒤 나당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648).

한편, 의자왕이 황음에 빠져 정치 질서의 문란과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 왔어도 모을 수 있는 군대가 계백의 5천 결사대 뿐이었고, 이들의 결사항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① 익산의 미륵사는 서동으로 유명한 백제 무왕(600~ 641)이 부인인 신라 선화공주(진평왕의 딸)가 소원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9년 미륵사의 서탑 해체 과정 중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의 기록에 따르면 좌평 사택적덕의 딸 출신인 백제인 왕비가 건립을 발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움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어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③ 근초고왕(346~375)은 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며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④ 성왕의 맏아들 위덕왕(554~598, 창왕이라고도 함)은 수나라와 통교하며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9.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설화 속에 담긴 역사

-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설총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언하는 백두옹(白頭翁: 할미꽃)을 두고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화왕(花王)에게 백두옹이 간언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에 왕이 정색하고 낯빛을 바꾸며 "그대의 우화 속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구나. 이를 기록하여 임금된 자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라."고 하고, 드디어 설총을 높은 벼슬에 발탁하였다.
- 동해 가운데 홀연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 머리와 같았다. 그 위에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 이름을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하였다.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③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하였다.
- ④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 ⑤ 위홍과 대구화상에게 삼대목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정답: ①

* 신문왕(681~692)의 업적

- 제시된 자료인 설총의 화왕계(花王戒)와 만파식적(萬波息笛) 고사는 모두 신문왕과 관련이 있다.

신라 삼국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692) 대에는 강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또한 13개 중앙 관부의 마지막 관부인 예작부(공부)를 설치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행정 조직과 9서당 10정의 군사조직 모두를 완성·정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문화적으로는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682)를 짓고 추모하는데, 죽어서 바다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낮고, 물결은 평온해졌다고 한다(만파식적).

② 원성왕(780~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788)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③ 법흥왕(514~540)은 상대등, 병부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520),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④ 선덕여왕 때 대국통인 자장(590~658) 을사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하고, 백제 장인 아버지를 초빙하여 지어졌다고 한다(643~645).

⑤ 진성여왕 대(887~897)에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향가집 <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888).

10.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가)의 황후 묘지 발굴

중국 지린성 허룽시 룡하이촌 룡터우산 고분군에서 (가)이/가 황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제8대 문왕의 부인 효의황후와 제9대 간왕의 부인 순목황후의 묘지(墓誌)가 발굴되었다. 이와 함께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금제 관식도 출토되었다.

순목황후묘 실측도



정답: ③

* 발해의 불탑

- 발해의 중경이 위치한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 고분군은 대표적인 발해의 왕실 고분군으로 20여기의 왕족무덤이 발굴되었고 정효공주묘가 대표적이다.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인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적인 요소와 당의 요소가 함께 있다.

수도인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이와 같은 당 문화적 건축물로 길림장백진 교외에 소재한 '영광탑'이 있는데, 13미터 높이의 5층 벽돌 탑이다. 만주 지역에서 현존하는 고탑(古塔)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래 되었다.

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7세기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 8세기 중엽 통일신라기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탑으로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③ 발해 영광탑

④ 경천사지 10층 석탑(국보 86호): 고려 말인 134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 석탑이자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원각사 10층 석탑).

⑤ 원각사지 10층 석탑(국보 2호): 고려시대 경천사 10층 석탑(국보 86)을 모방하여 만든 탑이다. '아(亞)' 자형의 3층 기단, 이와 같은 평면의 3층 탑신, 네모꼴로 된 4층 이상의 탑신이 경천사지 10층석탑과 기본적으로 같다.

11.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
- ②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③ 광평성 등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④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②

*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대하여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그는 중국(후당,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는 927년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어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고, 신라를 도우러 온 왕건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대패시켰다. 그러나 왕건의 고려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한편 후계 문제를 놓고 그와 갈등하던 만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하였고, 후백제 정벌에 앞장섰다. 결국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견훤도 곧 사망하였다(936).

①, ③, 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복원(원주)의 양길의 부하였다가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면서 (905)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가 (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었다(911). 그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전제정치를 도모하다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12.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왕 2년 교서를 내리기를, “..... 짐은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여 장차 민간에 큰 이익을 일으키고자 주전(鑄錢)하는 권정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두루 유통시키려 한다.”라고 하였다.
- 왕 6년 주전도감(鑄錢都監)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이로우를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으니 종묘에 고하소서.”라고 하였다. 또한 이 해에 은병(銀瓶)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다.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②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되었다.
- ③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
- ④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을 널리 재배하였다.
- ⑤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정답: ③

*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비정기적인 시장이 있어 도시 거주민이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최초의 화폐인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순종(1095~1105) 때에는 주전도감을 설치하고(1101) 삼한통보, 해동통보(1102), 해동중보 등 동전과 호리병 모양의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저포)를 사용하였다.

① 고구려는 약탈경제이며,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② 통일신라기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며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등도 전래되어 구황작물로 재배되었다.

⑤ 조선 전기 세종 때에 일본의 요청으로 3포를 개항하고(1426), 계해약조(1443)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세견선 50척, 세사미 200두)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13.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 세자인 대광현 등이 우리나라가 의(義)로써 흥기하였으므로 남은 무리 수만 호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계속하여 달려왔습니다. (가)께서는 이들을 더욱 가엾게 여기시어 영접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고, 성과 이름을 하사하시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들을 종실의 족보에 붙이고, 본국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 『고려사』 -

- 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 ②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다.
- ③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 ④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 ⑤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 고려 태조의 업적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918~943)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호족 통합을 위해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사성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경순왕 김부를 경주 사심관으로 삼음이 효시)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했을 때(926) 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고구려계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④ 고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14.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에 명령하여 축조하게 하였다.
- (나) 양규가 흥화전으로부터 군사 7백여 명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서 군사 1천여 명을 수습하였다. 밤중에 관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던 거란군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 (다) 묘청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보건대 서경의 임원역은 음양기들이 말하는 대화세(大華勢)이니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기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이요,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라)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6성을 새로 쌓았다 하여 하례하는 표를 올렸고, 임연에게 공적을 칭송하는 글을 짓게 하여 영주(英州) 남청(南廳)에 걸었다. 또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③

* 고려와 북방민족과의 대외관계 연대기

(나) 거란은 강조의 정변(1009)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삼아 2차 침입(1010)을 하였고,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 때 양규는 흥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낸 후 강감찬의 건의에 왕가도를 시키어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고 유소가 왕명을 받아 덕종~정종 때에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였다(1033~1044).

(라)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신기·신보·항마·군)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그러나 2년도 채 안되어 여진족의 간청으로 돌려주었다(1109).

(다)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개경파)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들(서경파)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정지상,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대화세(大花勢)의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하며,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15.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② [27회 중급 11번과 유사]

*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

충남 논산 은진면에 소재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국보 323호)은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 유난히 머리 크고 불균형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①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 (국보 84호): 7세기 백제의 마애불(벼랑 표면에 새긴 불상) 중앙에 여래 입상의 거구를 양각하고 여래의 오른쪽에 보살 입상을, 왼쪽에 반가사유형 보살좌상을 배치하였다. 온화한 미소가 매우 특징적이어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운다.

③ 합천 치인리 마애불 입상 (보물 222호): 통일신라기(9세기)의 거대한 마애불 입상으로 경직된 모습이지만 힘이 넘치고 당당해 보인다.

④ 용미리 석불 입상(보물 93호): 경기 파주 재. 천연 암벽을 조각하여 1쌍의 석불을 만들었다. 왼쪽 석불은 둥근 모자를 오른쪽 석불은 사각형 모자를 썼다.

⑤ 경주 배동 삼존여래 입상 (배리 석불 입상: 보물 63호) 중앙의 본존과 좌.우 협시상으로 구성된 삼존불 입상으로 푸근한 자태와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 7세기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이고 있다.

16.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의 장수 합진과 활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겠다고 말하면서 화주, 맹주, 순주, 덕주의 4개 성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곧바로 강동성으로 향하였다. 조종과 김취려가 합진, 완안자연 등과 함께 병사를 합하여 강동성을 포위하니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다. -「고려사」-

○ (가)에서 조서를 보내 이르기를, “..... 너희들이 모의하여 [우리 사신] 저고여를 죽이고서는 포선만노의 백성들이 죽었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 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진하였다.
- ②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 ③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④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저항하였다.
- 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정답: ③

* 고려의 몽골과의 항쟁

징기스칸에 의해 통합된 몽골은 금을 공격하고 북중국과 만주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김취려가 이끄는 고려, 몽고, 동진국이 연합하여 거란 유민 세력을 격퇴하며 고려는 몽골과 첫 접촉을 하게 되었다(1218년, 강동의 역). 이후 여.몽 협약 체결과 이에 따른 무리한 조공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저고여 피살사건(1225)을 기화로 고려와 몽골과의 4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1차 침입 때에는 몽골의 살리타이가 쳐들어왔다. 박서의 귀주성 전투 승리, 마산(파주)의 초적, 충주성의 지광수가 이끈 노비, 잡류군의 승전 등이 있었으나 개경이 포위되어 결국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몽골이 설치하고 간 다루가치 72인 모두 피살되자 살리타이의 2차 침략이 시작되었다(1232). 최우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

다. 경기도 광주산성에서 민병의 승리와 처인성에서 처인 부곡민과 승려 김윤후의 활약에 의해 살리타이가 죽음으로써 경기 이남 지역을 내려가지 못하고 회군하고 말았다. 이 때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다. 3차 침입(1235~1239)은 5년 동안의 장기간 침입으로서 이는 수년 전 고려로부터 당한 패배를 보복하며 아울러 고려를 완전히 제압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가한 것이었다.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에서 민병의 승리가 있었고, 불력의 힘으로 맞서고자 대장도감을 설치하며 팔만대장경 각판이 시작되었다(1236~1251). 이 때 황룡사 목탑이 소실되었다.

4차 침입(1247~1248) 때에는 아모간이 침략하였으나 원의 황제 정종의 죽음을 계기로 곧 철수하였고, 5차 침입(1253~1254) 때에는 야굴이 침략하였으나 충주성에서 김윤후가 지휘하는 민병과 관노의 승전이 있었다.

6차 침입(1254~1259)은 무려 6년에 걸친 장기간의 침략이었고 차라대가 이끈 최대의 전화로, 고종 41년(1254)년 한 해에만 몽고군에게 포로 된 자가 20만 6천명, 살육된 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한다. 이때도 임연이 이끈 진천민의 승리, 충주성 부근의 다인철소민의 승리 등이 있었으나, 조휘, 탁청 등의 반역을 계기로 동계의 화주 이복 15주가 이탈하여 1258년 몽골에 의해 쌍성총관부가 성립되는 등 동북면 방어체제가 와해되었다. 장기간의 싸움 속에서 몽골과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가 득세하고 최씨 정권의 붕괴(1258) 배경 속에서 고종 46년(1259) 고려 태자를 통하여 강화가 성립되었다. 김준, 임연, 임연무의 잔여 무인 정권이 강화를 반대하였지만 결국 몰락하였고, 1270년 개경 환도를 단행하며 원의 간섭기가 시작되었다.

③ 고려 말 최무선은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고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1377),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17. (가)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용어 해설

(가)

1. 개요
1405년(태종 5)에 독립된 기구로 개편된 중앙 관서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모두 6인의 승지가 있었다.

2. 관련 사료
승지에 임명되는 당사관은 이조나 대사간을 거쳐야 말을 수 있었고, 인망이 마치 신선과 같으므로 세속 사람들이 '은대(銀臺) 학사'라고 부른다.
- 『임하필기』 -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 ②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 ③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 ④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⑤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정답: ④

* 승정원에 대하여

조선의 중앙 관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정승의 재상 등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 아래에 이·호·예·병·형·공조로 구성된 6조는 속사와 속아문을 두고 지휘 감독을 하였다.

사헌부(주로 백관 규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담당), 사간원(태종 때에 문하부에서 독립되어 설치, 주로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담당), 홍문관(일명 옥당, 성종 때에 집현전 계승하여 설치,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이라 불렸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경력 등을 심의·승인하는 서경(고려와는 달리 5품 이하의 관리 등용에만 적용), 왕께 간언을 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밖에,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인 의금부(고려 말의 순군부를 개편),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도승지 이하 6승지가 6조를 분담), 수도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② 고려의 삼사는 언론의 기능을 하는 조선의 삼사와는 달리,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았다.

⑤ 예조의 속아문인 사역원은 사신들의 통역과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등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8. 다음 역사가가 편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대체로 옛 성인들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보통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로 보건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책머리에 기이(紀異)편을 실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신(臣) 이승휴가 지어서 바칩니다. 예로부터 제왕들이 서로 계승하여 주고받으며 흥하고 망한 일은 세상을 경영하는 군자가 밝게 알지 않아서는 안 되는 바입니다. 그 선하여 분만을 만한 것과 악하여 경계로 삼을 만한 것은 모두 일마다 춘추 필법에 따랐습니다.

- 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 ②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③ 최충이 유학을 교육하는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④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 ⑤ 의천이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정답: ②

* 삼국유사(1281)와 제왕운기(1287)가 편찬된 이후의 역사적 사실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신이적(神異的) 사실을 많이 담고 있어 왕력과 함께 기이편을 책의 권두에 두며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가 써서 국왕께 찬진한 '제왕운기'는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언시, 5언시로 중국사(전설시대~원)와 본국(단군~충렬왕)의 역사를 병렬적(대등하게)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3한, 3국, 예맥, 부여 등 모든 고대국가들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 지역으로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세계로 파악하였으며, 발해를 본국 역사에 포괄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① 고려 광종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958)를 처음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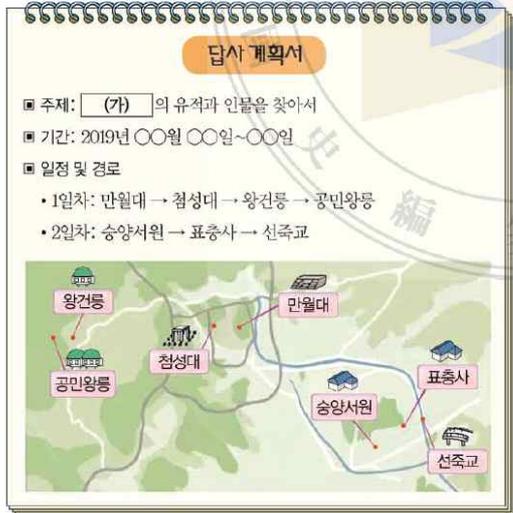
② 고려 말 충선왕은 원의 연경에 만권당(1314)을 세우고 이제현 등의 성리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③ 고려 중기 문종 때의 지공거 출신 대유학자인 최충(984~1068)은 9재 학당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④ 무신정권기인 명종 때에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공주 명학소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⑤ 고려 중기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불교계에, 문종의 아들인 의천(1055~1101)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19.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하였다.
-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④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 ⑤ 현존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정답: ④

* 개성의 역사

고려의 도읍지는 송악(개성)이다. 이 곳의 건축은 궁궐과 사원이 중심이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개성 만월대 터는 경사진 면에 축대를 높이 쌓고 건물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건물이 층층으로 나타나 웅장하게 보였을 것이다.

개성 남대문은 조선 초기에 지어졌지만 고려 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개성의 북산인 송악산은 최충헌의 사노인 만적이 노비들을 규합한 곳으로 "...장군과 재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부르짖으며 신분 해방 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1198).

개성 선죽교는 고려 말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신진 사대부 중 온건파를 이끌던 정몽주(동방 이학의 원조)는 급진파(혁명파)와 대립하다 이방원(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곳(선죽교)으로 유명하다(1392).

개성의 상인을 송상이라 하는데, 이들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이 건설(2000년 합의, 2004년 입주)되어 한 때 남북 간 경제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현재 중단).

① 병자호란(1636) 때에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에, 그 외 비빈과 원손·대군들은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②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가 개최되었다

③ 독일상인 오페르트는 흥선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충남 예산군 덕산 소재)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났다(1868).

⑤ 청주 흥덕사에서 현존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요절' 간행되었다(1377).

2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② 최초로 100리 척 측척법을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 ③ 홍역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하였다.
- ④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를 저술하였다.
- ⑤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정답: ④

* 자주적 역법서 칠정산

조선 세종 대(1418~1450)에는 여러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있었다.

농업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1429, 정초·변효문).

또한, 천문학·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를 발명, 제작하였고, 여기에는 무인 출신 이천과 노비 출신 장영실이 활약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혼천의)와 간의(간소환된 혼천의, 각도기)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서울은 서운관(->관상감)에, 지방은

각 도와 군현의 객사정에 설치하고 수령이 직접 강우량을 측정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역법(달력)으로는 이순지, 김담 등에 의해 편찬된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

인쇄 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금속활자로 태종대의 계미자(1403)를 이어 경자자(1420)를 만들었고, 종전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대체하여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갑인자, 1434).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①, ③ 조선 후기 정조 대에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마진(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하여 '마과회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②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정상기(1678~1752)는 100리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1740).

⑤ 19세기 말 고종 대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을 확립하였다.

2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는 8도의 부·목·군·현에 파견되는 (가)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기는 1800일이고, 원칙적으로 삼피제의 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 관아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나)입니다. 고려 때에는 달리 요즘은 외역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정을 호정이라고도 부릅니다.



- ① (가) - 단안(壇案)이라는 명부에 등재되었다.
- ② (가) -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 ③ (나) - 감사, 도백으로도 불렸다.
- ④ (나) - 장례원(掌隸院)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 ⑤ (가), (나) -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정답: ②

* 조선 시대 수령과 향리

(가) 조선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하기 때문에 지방 세력화 하지 않도록 임기제(1800일)와 삼피제(출신지 부임 못함)를 적용하고,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나) 조선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하며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향리는 6전 조직에 입각하여 6방으로 구성되는데 이·호·형방을 3공형이라 하여 중시하고 군현 행정의 기본으로 삼았다. 조선 전기에는 호방의 수석인 호장이 6방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수령이 부재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기도 하였다.

- ① 군현에서 향리들을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족(吏族) 명부인 단안(壇案)의 등재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했다. .
- ③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감사, 도백)를 파견하였다.
- ④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은 장례원(掌隸院)이다.
- ⑤ 수령은 보통 문·무과 급제자 중에서 임용되었고, 향리 임용은 과거와는 무관하며,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것이다.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왕이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엄씨와 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았다. …… 왕이 장검을 들고 자순 왕대비 침전 밖에 서서 ……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라고 하며 불손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운이니 소운이니 하는 말이 있었다. …… 인종이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었다. …… 자전(慈殿)은 밀지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임백령·정순봉·허자가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 냈다.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

- ①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 ②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되었다.
- ③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정답: ②

* 조선 중기 사화(士禍)의 전개 과정

연산군(1494~1506)은 훈구와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영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향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 마치 세조에 의해 죽은 단종을 빗대는 듯이 보임)이, 그가 죽은 후에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로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들을 처형하는 무오사화(1498)가 발생하였다.

이어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둘러싸고 궁중파(임사홍, 신수근)가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복위를 반대한 잔존 사림(윤필상, 김굉필, 정여창)과 훈구파 중부중파(한명회, 정창손) 등을 처형하는 갑자사화가 발발하였다(1504).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사림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훈삭제에 대해 반발하는 훈구 공신들의 주초위왕(走肖爲王) 모략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소운, 명종의 외척), 윤임(대운, 인종의 인척) 등 외척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윤임 일파와 함께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① 조선 태조의 5째 아들인 이방원(태종)은 정도전과 그가 후원하던 배다른 형제로 세자이던 방석(7남)을 제거하는 1차 왕자의 난(1398)을 일으키며 실권을 장악하였다.

③ 광해군과 복인 정권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펼치자 이귀, 김류 등의 서인들은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인조)을 왕으로 옹립하였다(1623).

④ 세조 때에 성삼문,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상왕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1456)

⑤ 선조 대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 ② 지방의 사립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 ③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 ④ 최고의 관립 교육 기관으로 성현의 제사도 지냈다.
- ⑤ 흥선 대원군에 의해 47개소를 제외하고 철폐되었다.

정답: ④

* 성균관에 대하여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한양)의 4학(중학, 동학, 남학, 서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천자문, 유합, 동몽선습, 격몽요결 등을 학습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보편화 되며 서민 교육이 확대되어 서민문화가 발달케 되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최고 교육 기관(세자도 8세 이후에 형식적으로 입학례를 치름)인 성균관은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소과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여 대과를 준비하는 예비 관료 양성의 역할을 하였다. 성균관은 명륜당(유학을 강의하는 곳), 대성전(공자를 모시는 곳), 동·서 양재(유학생들 기숙사), 동무, 서무(선현 제사), 비천당(과거시험을 보는 곳), 존경각(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16세기 이후 지방의 사림들이 설립한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리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봉당의 근거지가 되어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47개 외에는 철폐하였다.

① 사족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향청)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24.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세자 시절 쓴 활인시입니다. 취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에 불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 ② 왕권 강화를 위해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 ③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판찬되었다.
- ⑤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정답: ①

* 북벌을 주도한 효종의 업적

인조(1623~1649) 때에 정묘(1627), 병자(1636) 두 차례의 호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선은 정부나 백성 모두가 청에 대한 적대 감정과 복수심에 불탔다. 이에 청을 쳐서 원수를 갚아야한다는 북벌론이 일어났다.

특히, 청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효종(1649~1659)은 북벌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효종은 송시열(1659년 독대를 통한 북벌 추진), 이완 등과 함께 남한산성 및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의 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나,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는, 청이 한쪽의 반발을 누르면서 중국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만주 북부의 헤이룽 강 부근에 러시아가 침략해 오자, 청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 이를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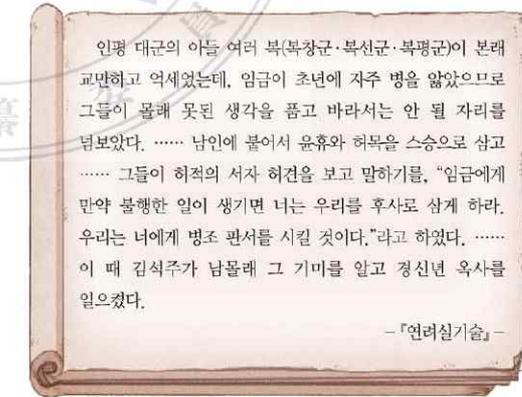
② 정조(1776~1800)는 국왕 친위 부대로 장용영(장용위:1785->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③ 조선 숙종(1674~1720) 때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국경 경계로 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④ 영조(1724~1776) 때에 국가적 사업으로 흥봉한 등을 시켜 '동국문헌비고'(1770)가 편찬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⑤ 광해군(1608~1623) 때에 허준이 동의보감(1610)을 펴내 전통의학을 집대성하였다.

25.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③ 이괄의 난이 일어나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 ④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국을 독점하였다.
- 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되었다.

정답: ⑤

* 경신환국(1680) 이후의 역사적 사실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경신환국(1680): 남인과 가까운 숙종의 당숙들인 삼복의 옥과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허견의 역모) 서인이 남인(허적, 윤희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원자(장희빈 소생)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반대하는 서인들을 몰아내고 집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 등이 사사됨.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중전 장씨의 희빈 강등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

① 현종 대(1659~1674)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에서 자의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기해(1659), 갑인(1674) 2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각각 서인과 남인이 승리하였다.

② 선조 때에 기축옥사(1589~1591) 즉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연루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③ 인조 반정(1623) 과정에서 공이 큰 이괄 2등 공신으로 한 것은 이괄의 난(1624)을 불러일으키고 도성이 함락되고 인조는 공주로 피난가기 까지도 하였으나 도원수 장만이 관군과 의병을 모아 진압하였다.

④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26.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 ②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 ④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 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⑤

* 대동법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659년 김육의 건의로 삼남 지방으로 확대, 1708년 완결, 평안, 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또한 조세를 현물 징수에서 쌀, 베, 돈으로 대신됨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촉진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① 흥선 대원군은 호포법을 실시하여 종래 상민에게만 거둬들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1871).

② 고종은 대한제국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③ 조선 전기 세종 때에 공법(1444)을 마련하여 전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각각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④ 영조 때에 균역의 개혁으로 균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2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의 차이가 1백 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계(正界)로 삼고 서양을 도계(倒界)로 삼으며, 서양 사람은 서양을 정계로 삼고 중국을 도계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지역에 따라 모두 그러하니, 횡(橫)이나 도(倒)할 것 없이 다 정계다.

-「의산문답」-

- ①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②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③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④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 ⑤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 지전설을 주장한 홍대용

유수원(1694~1755)에 의해 시작된 중상적 실학사상은 18세기 후반에 청나라를 다녀온 홍대용(1731~1783), 박지원(1737~1805), 박제가(1750~1805)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여 북학파를 형성하였다.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면서(기행문 담헌연기)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혁신과 문벌 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화이관)을 비판하였다.

특히 <의산문답>에서 북경 여행을 배경으로 의무려산에 숨어사는 실옹(實翁)과 조선의 학자 허자(虛子) 사이에 대화체로 지금까지 믿어 온 고정 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지구의 1일 1주 회전설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우주 무한론을 주장하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 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 파격적 우주관을 제시하였다.

② 조선 정조 때에 유득공(1748~1807)은 발해고(1784)를 저술하여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며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③ 서·화에 능한 김정희(1786~1856)는 금석학에도 능하여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④ 정조 때에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이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거, 서이수 등이다.

⑤ 정약용(1762~1836)은 한 마을을 여(呂)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인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28.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였다.
- ②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 ③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 ④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 ⑤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하였다.

정답: ④

* 천주교에 대하여

천주교는 17세기 청의 북경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1784)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전북 진산 윤지충의 신주 소각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신해박해(1791)가 있었으나 당시 국왕인 정조와 남인 재상 체제공의 경우 정학을 강화시키면 사학은 자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에서 온건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이상의 대책이나 사상 통제의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 대탄압이 가해졌다(신유박해, 1801). 이 사건으로 이승훈,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이 유배를 당하는 등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특히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천주교인들은 더더욱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동 김씨가 집권하는 세도 정치기에는 탄압이 완화되면서 백성에게 활발히 전파되었다.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서양인 신부가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최대의 박해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고종 때의 박해인 병인박해(1866)가 유명하다. 이 박해는 천주교 최대 최후 박해로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한 8000명이 순교당하였고,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침공하는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①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고 19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다.

② 고려에서 조선 전기에는 궁중에서 도교 의식의 하나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조선에서는 소격서가 이를 주관하였다.

③, ⑤ 민족 종교인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포함하여 창도하였다. 2대 교주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교리책인 동경대전과 포교 가사책인 용담유사를 펴내었다.

29.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호조 판서 이성원이 말하기를, “중전에 허다하게 주조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렸을 리가 없고, 경외(京外) 각 아문의 봉부동전(封不動錢)* 역시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과 금년에 전황(錢荒)이 극심한 것은 아마도 부상(富商)과 대고(大賈)가 이 때를 틈타 갈무리해 두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비변사등록』 -

*봉부동전(封不動錢): 장고에 넣고 쓰지 못하도록 봉해 둔 비상대비용 돈

- 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 ②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수조권이 세습되는 수신전, 흠양전이 있었다.
- ④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 ⑤ 왜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 ③

* 전황이 발생하던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조선 후기에는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대외교역 등 모든 산업이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농업에 있어서 모내기법(이앙법)이 확대되었다. 모내기법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어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면화,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조선 후기에는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는데 광

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 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중강, 회령, 경원)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중강, 책문, 단속사)가 이루어졌고 의주 상인(만상)이 주도하였다. 또한 일본과도 개시.후시 무역이 이루어져 부산 동래상인(내상)이 주도하였다.

한편,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숙종 때에 허적 등의 건의로 주조된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전황).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③ 조선 초기 과전법 하에서는 죽은 관료의 미망인과 어인 유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흠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때에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1466).

30.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②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 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정답: ⑤

* 진주민란(1862)

세도정치(1800~1863) 하 농민봉기는 철종 때에 가장 심하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 되었다(1862년 임술농민봉기).

이 때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과 향리들의 수탈(엄청난 환곡 전횡)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이 시기의 농민봉기는 대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 규모나 양상도 비슷하였다. 특히 환곡의 폐단이 심하였고 처음에는 관청에 호소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봉기한 것이다.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었다.

① 청에 의해 진압이 된 정치적 격변은 임오 군란(1882.6)과 갑신정변(1884.12)이다

② 동학은 진주민란 전인 1860년에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인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③ 이괄의 난(1624) 때에 도성이 함락되고 인조는 공산성(공주)으로 피난가기 까지도 하였다.

④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1894.9) 때에는 남접(전봉준:전라도)과 북접(손병희:충청도)의 농민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하고(11월 초, 논산에 대본영 설치),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12월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31.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학년 ○○반 이름: ○○○
◎ 밑줄 그은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1880년에 설치되었다. 소속 부서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대사와 교린사, 중앙과 지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무사,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일을 맡는 통상사, 외국어 번역을 맡은 어학사, 재정 사무를 담당한 이용사 등 12사가 있었다.	
답안	

- ①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 ② 미국과 협력하여 한성 전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③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 ④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조하였다.
- 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정답: ③

* 개화정책 총괄기구 통리기무아문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고종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화정책을 총괄하는(군국기무와 대외교섭)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12)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통상.재정.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으로 통합개편하는 한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외국문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박정양을 조사로 하여 젊은 관리들을(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하여(1881.4) 여러 정부기구와 산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시찰하게 하였고, 청에도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젊은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1881.9) 텐진에서 근대 무기제조기법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 때에 흥선 대원군이 일시 집권하며 별기군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후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며 대외교섭기구로만 기능하였고, 2차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었다(1895.3).

①, ⑤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때에는 김홍집·박영호 연립내각에 의해 개혁이 추진되어,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고, 교육입국조서(1895.2)를 발표하여 사범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소학교령 등이 마련되었다.

② 1898년 1월에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과의 합작으로 세워진 한성전기회사는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과 전차를 가설하였다.

④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상평통보 100배의 명목가치인 당백전을 금위영에서 발행케 하여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1866).

32.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한국사 시민 강좌〉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우리 학회에서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좌 순서	인 물	주 제
제1강	최익현	(가)
제2강	김옥균	(나)
제3강	전봉준	(다)
제4강	김홍집	(라)
제5강	홍범도	(마)

• 일시: 2019년 ○○월 ○○일~○○월 ○○일 14시
 • 장소: □□ 대학교 대강당
 • 주관: △△학회

- ① (가) - 반침략 기치를 들고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다
- ② (나) - 군국기무처의 총재로 개혁을 주도하다
- ③ (다) - 입헌 군주제를 꿈꾸며 갑신정변을 일으키다
- ④ (라) -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항일 의병을 이끌다
- ⑤ (마) - 평민 의병장에서 대한 독립군 사령관으로 활약하다

정답: ⑤

* 근.현대의 주요 인물들

(가) **최익현(1833~1906)**: 위정척사의 상징적 인물. 강화도 조약(1876)으로 개항을 할 때에 지부복궐(도끼를 지고 앞드림)의 상소와 단발령(1896) 때에 “내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의병운동의 전개를 촉구하며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순창에서 패하여 쓰시마섬에 유배되어 단식 순국하였다.

(나) **김옥균(1851~1894)**: 박영효, 서재필 등과 함께 입헌군주제의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당하였다.

(다) **전봉준(1855~1895)**: 반봉건 반침략을 기치로 동학농민운동(1894)을 주도하였다. 공주 우금치에서 정부군과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패하며 실패로 끝났다.

(라) **김홍집(1842~1896)**: 온건 개화파 인물로 1차 갑오개혁(1894. 7~12)에서 군국기무처의 총재로 개혁을 주도하였다. 을미개혁 때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민중의 분노를 사 아관파천으로 실각하며 피살되었다.

(마) **홍범도(1868~1943)**: 구한말 평민 포수 출신 항일 의병장. 일제 하에서는 대한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1920.6)에서 일본군 150여 명을 사살하였고, 청산리 전투에서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등과 함께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는 항일무장투쟁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33.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일본 장교는 군사의 대오를 정렬하여 합문을 에워싸고 지키도록 명령하여, 흥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 폐하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이에 자객 20~30명이 전각으로 돌입하여 왕후를 찾았다. 자객들은 각처를 찾더니 마침내 깊은 방 안에서 왕후 폐하를 찾아내고 칼로 범하였다. 녹원 수풀 가운데로 옮겨 석유를 그 위에 바르고 나무를 쌓아 불을 지르니 다만 해골 몇 조각만 남았다.

- 고종재판소 보고서 -

	1882	1884	1889	1894	1896	1904
	(가)	(나)	(다)	(라)	(마)	
1	임오 군란	갑신 정변	함경도 방곡령 선포	청·일 전쟁	아관 파견	러·일 전쟁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 을미사변(1895.10)

청일전쟁(1894.7~1895.4)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민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일본 군대와 해산 직전의 훈련대의 내응에 힘입어 경복궁 건청궁에 난입하여 을미사변을 일으키고(민비 시해 사건, 1895.10)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을미개혁, 1895.10~1896.2).

34. (가) 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어진은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본래 조선의 왕은 홍룡포를 입었는데, 고종은 황룡포를 입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후 새로운 국호인 (가) 을 선포하였습니다.



- 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 ② 김윤식을 청에 영선사로 파견하였다.
- ③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행정 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 ⑤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①

* 광무개혁(1897~1904)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궁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대한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또한 우리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도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북변도 관리를 설치하고(관리사 이범윤)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으며(1902),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② 개항 후 정부는 청에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젊은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근대 무기제조 기법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1881.9) .

③ 을미개혁(1895.7~1896.2) 때에 건양 연호를 사용하고,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④, ⑤ 1차 갑오개혁(1894. 7~12) 때에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공사(公私) 노비법을 폐지하며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도 폐지하였다.

35.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 ②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 ③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④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순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 ③

* 대한매일신보(1904~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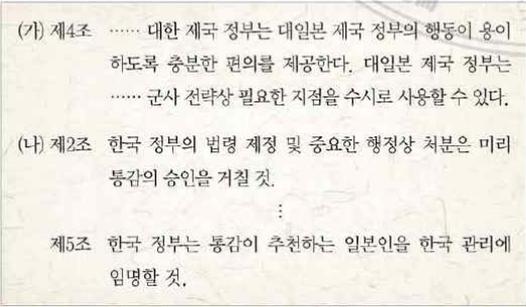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창간되었고, 한·영문 합판으로 구성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항일의병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항일언론이었으나, 베델 사후 국권피탈(1910)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다

① 천도교계에서 발행한 만세보(1906~1907)는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민중을 계몽했고, 일진회 등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경영난에 빠지자, 이완용의 사주를 받은 이인직이 1907년 인수하여, 대한신문으로 바꾸고 친일내각의 기관지로 탈바꿈되었다.

②, ⑤ 개항 후 정부는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다. 순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10일 마다 발행되었으며(旬報)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갑신정변(1884.12)의 실패로 폐간되었다. 이후 온건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1886.1~1888.7)로 재탄생하였는데 최초의 상업광고인 세창양행 광고를 게재하였다.

④ 1920년 창간된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36. (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② 의병 진압을 위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되었다.
- ③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 ④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 ⑤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정답: ④

* 국권의 피탈과정

(가) 한일의정서(1904.2)

(나) 한일신협약(1907.7)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제는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1차 영일동맹(1902)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러시아를 선제공격하며 전쟁을 일으켰다(러일전쟁, 1904.2~1905.9).

이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1904.2)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피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영국과는 2차 영일동맹(1905.8)을 맺은 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1905.9)을 체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하였다(1905.11).

그러나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에 독립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미국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상호협력 조항을 근거로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고 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으나(1907), 열강들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던 세계정세 아래에서 성공을 허두지 못하였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이어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남한대토벌작전, 1909.9~10) 사법권(기유각서, 1909.7)과 경찰권(1910.6)을 빼앗은 다음,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대한제국을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결국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한일병합: 1910.8).

① 안중근(1879~1910)은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1909.10).

③ 동학농민동 당시 텐진조약에 의거해 출동한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였다(1894.7)

⑤ 갑신정변(1884.12) 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영국은 전남 남해안의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1885~1887).

37. (가)~(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한국사 과제 안내문

■ 다음 국외 독립 운동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 간민회 (가)
- 부민단 (나)
- 신한 청년당 (다)
- 대한인 국민회 (라)
- 대한 광복군 정부 (마)

■ 조사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

■ 제출 기간: 2019년 ○○월 ○○일~○○월 ○○일

■ 분량: A4 용지 3장 이상

- ① (가) - 샌프란시스코에 중앙 총회를 두었다.
- ② (나) - 송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③ (다) -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④ (라) -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 ⑤ (마) -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였다.

정답: ⑤

* 해외 지역의 독립운동

(가) **북간도**: 19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이주한 간도지역에서 동포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를 지었다. 북간도의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단체와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졌다. 특히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종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나) **서간도(또는 남만주)**: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군정서)을 조직하였다.

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군정서)을 조직하였다.

(다) **상해**: 1918년 여운형, 김규식의 주도하에 신한청년단이 결성되었고, 이듬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1919)에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미주**: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지역의 교민들은 여러 단체와 학교와 교회 등을 세웠다. 1908년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 저격의거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1910)로 통합되었다.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멕시코에서도 송무학교를 세우며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3.1 운동 때에는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를 통해 호응하였다.

(마) **연해주**: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노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의군과 성명회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권업신문 발행과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가 설립되어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며 군사활동을 준비하였다.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결성되어 3·1 운동에 호응하고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④ 일본은 유학, 취업 등 목적 이주하였으며, 1919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어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8. 밑줄 그은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신문

제△△호 ○○○○년○○월○○일

일본군, 제암리에서 주민 학살



폐허가 된 제암리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현재 화성시) 제암리에서 일본군에 의한 참혹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여, 밖에서 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 불을 질러 약 30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인근 교회와 민가 수십 호에도 불을 질렀다. 이는 최근 만세 시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해진 일본군의 탄압으로 보인다.

- ①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되었다.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 ③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 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④

* 3.1 운동(1919)

일제의 무단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 고무되어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이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 도시와 농촌까지 파급되었고,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각계각층의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①, ② 사회주의자와 학생(조선학생과학연구회)들을 중심으로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계획된 만세시위 운동은, 사회주의자측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음에도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진행되었다(1926년 6.10 만세운동)

③ 1920년대에 백정들은 일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1915년 7월,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1915.1)을 조직한 박상진은 채기중의 풍기 광복단(1913)과 합작하여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여, 공화정체를 목표로 하여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아 만주에서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다.

39.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지난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고보학생 대 중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하여 종로에 있는 (가) 본부에서는 제19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장성·송정·광주 세 지회에 대하여 긴급 조사 보고를 지령하는 동시에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고 있던 바, 지난 8일 밤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한 결과, 사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모 세 최고 간부를 광주까지 특파하기로 하고 9일 오전 10시 특급 열차로 광주에 향하게 하였다더라.

- 동아일보 -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②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되었다.
- ③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 ④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⑤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좌우합작단체 신간회(1927~1931)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 넘어 민족협동전선(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회장 이상재)

신간회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 철폐 등을 주장하였고, 사회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신간회는 민중 대회 사건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소되고 말았다(1931).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 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① 김원봉이 1919년 결성한 의열단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1923)'을 지침으로 삼아 일제와 친일 요인을 처단하고, 주요 기관을 파괴하였다.

③ 정인보.문일평.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임정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통해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정신을 표방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⑤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신민회 회원인 이승훈은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1907)를 안창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1908)를 설립하였다.

40.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1. 친일 단체 조직의 필요

…… 암암리에 조선인 중 …… 친일 인물을 물색케 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 그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토록 할 것.

1. 농촌 지도

…… 조선 내 각 면에 ○재회 등을 조직하고 면장을 그 회장에 추대하고 여기에 간사 및 평의원 등을 두어 유지(有志)가 단체의 주도권을 잡고, 그 단체에는 국유 임야의 일부를 불허하거나 입회를 허가하는 등 당국의 양해 하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

-「사이토 마코토 문서」-

- ①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 ②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이 마련되었다.
- ③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이 제정되었다.
- ④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감부가 신설되었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정답: ②

*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

3·1 운동(1919) 이후 1920년대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문관 총독 임명을 가능케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경찰 수와 장비 등 경찰력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교사들의 제복대검을 폐지하고 민족계열의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1920)을 허용했으나 수시로 검열,삭제를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제정된 치안유지법(1925)은 일본제국과 식민지 전체에 적용되는 천황 통치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로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또, 일제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 운동가들도 회유하는 한편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가들은 철저히 탄압하였다. 대표적으로 3.1 운동의 거족적 저항에 놀란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들에게도 참정권과 자치권을 주고,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전하였다. 이것은 독립운동을 자치 운동으로 유도하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조선 의회는 설립되지 않았고, 한국인의 일본 의회 참여도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도(道)·부(府)·면(面)에 평의회, 협의회라는 이름의 자문 기구를 설치했지만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같은 의결권이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도지사, 군수가 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본인이거나 친일 인사만 의원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실상은 자치 방식이 아닌 동화주의이고, 내선융화로서 동화의 주요 대상은 중상류층 지역 유지 또는 지식인 계급이었다.

①, ③, ④, ⑤ 1910년대 일제는 헌병 경찰제도(헌병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감에 임명됨)를 실시하였고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경제적으로는 1912년 토지조사령이 제정되어 토지조사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어 기한부 신고제로 실시되었고(미신고 토지는 총독부 소유로), 1910년 회사령이 제정되어 기업 설립이 총독의 허가로만 가능하였다.

41.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② (가) - 잡지 개벽을 발행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 ③ (나) -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④ (나) -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⑤ (가), (나) -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자신회를 결성하였다.

정답: ②

* 천도교와 대종교

(가) 동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후 이용구 등 일부 동학 교도들이 친일 활동을 하자(일진회),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1905). 1919년 3.1 운동 때에는 손병희, 최린 등이 민족대표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1922년 3월 1일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여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문화적으로는 만세보를 창간하였으며(1906), 또한 개벽사를 설립하여 개벽, 신여성, 어린이,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고, 방정환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나) 을사 5적을 처단하기 위한 자신회 (1907)를 이끌던 나철, 오기호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서일 등이 중광단(1911)을 결성하였고, 중광단은 1919년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① 북간도 지역의 항일무장단체인 의민단 (1919)을 조직한 종교단체는 천주교이다.

③ 경향신문은 본래 1906년 10월 천주교에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발간한 순한글판 주간신문으로 간행되다, 1962년에는 독립지가 되었고, 1950년대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를 비판하다 1959년 강제폐간되기도 하였다.

④ 미국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배재학당(1885)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힘썼다.

42.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봉 창

서울 출신으로 192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막일로 생계를 유지하다 민족 차별에 분노
하여 독립 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1931년 김구가 조직한
(가)에 가입하고, 1932년 1월 도쿄
에서 일왕이 탄 미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같은 해 사형을 선고받아 순국하였으며,
광복 후 서울 효창 공원에 안장되었다.



- ①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 ②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 ③ 흥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하였다.
-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 ⑤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훈련에 힘썼다.

정답: ③

* 한인 애국단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만보산 사건(일제의 술책으로 1931년 7월에 있었던 만주지역 한.중 농민의 유혈충돌)과 만주 사변(1931년 9월에 있었던 일제의 만주 침공. 일제는 이후 이 지역의 조선인을 우대하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정책을 펼쳐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다) 등으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10월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 행렬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흥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①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②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④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6).

⑤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개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5년 몸소 중국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조선혁명간부학교(1932)를 세워 조선인 군사간부를 양성하였다.

43.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외관상의 이른바 특수성이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사 연구의 법칙성이 가능하게 되며, 그리고 세계사적 방법론 아래서만 과거의 민족 생활 발전사를 내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의 위압적인 특수성에 대해 절망을 모르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 ②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를 위해 진단 학회를 창립하였다.
- ③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독립 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 ④ 임시 사료 편찬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 ⑤ 식민 사학을 반박하는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정답: ⑤

* 사회경제사관을 내세운 백남운

일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을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관을 앞세워 한국사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박은식(1859~1925)은 <한국 통사>(1915)와 <한국 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족 정신을 '국혼'과 '국백'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혼'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정신을 정리하였다.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신채호(1880~1936)는 <조선 상고사>(1931,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와 <조선사 연구초>(1929,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를 지어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으며, '낭가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정인보(조선 '얼 강조), 문일평(조선 '심' 강조), 안재홍(신민족주의 주장)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1930년대에는 백남운(1894~1979)에 의해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그는 <조선사회 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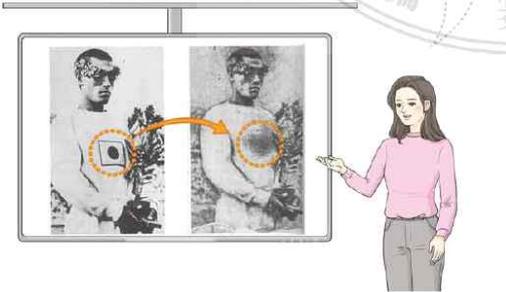
한국 학자들이 1934년 세운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이병도, 손진태 등)를 중심으로 실증주의 사학도 발달하였다.

① 최남선(1890~1957)과 이병도(1896~1989) 등이 조선사편수회에 촉탁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산하에 안창호·이광수·김병조 등을 중심으로 임시 사료 편찬회(1919.7)를 구성하고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였다.

44.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 사진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모습입니다. 일부 신문들이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는데, 이 사건으로 해당 신문들은 무기 정간을 당하거나 자진 휴간했습니다.



- ① 일제에 의해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② 신경향파 작가들이 카프(KAPF)를 결성하였다.
- ③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되었다.
- ④ 여성 계몽과 구습 타파를 주장하는 근우회가 창립되었다.
- ⑤ 일제가 한글 학자들을 구속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정답: ⑤

* '일장기 말소 사건'(1936)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이 사건은 1936년 동아일보가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움으로써 일어난 일제의 민족연론 탄압사건이다.

이로 인해 동아일보는 창간 이래 4번째의 무기정간 처분을 하였다가 9개월 후에 복간 조치하였다. 한편 조선중앙일보도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실은 뒤 총독부의 검열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신문을 휴간하였다

① 일제는 1920년대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설립하였다.

② 192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박영희, 김기진 등이 카프(KAPF)를 결성하였다(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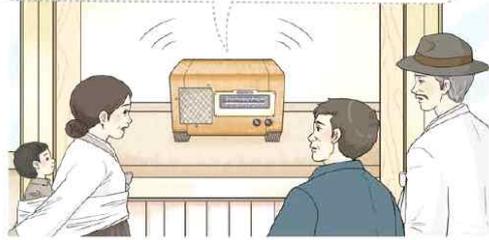
③ 나운규(1902~1937)는 1926년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하였다.

④ 신간회(1927~1931)의 자매 단체로 근우회(1927~1931)가 설립되어 여성 계몽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⑤ 1942년 함흥영생여고의 한 학생의 한국말 대화를 취조하던 일제는 한글 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배후의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장지영, 최현배, 이희승, 이극로 등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때 이운재와 한징은 옥사(獄死)하였다.

45.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지난 5·10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적용을 받는지는 한·일 합방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 등입니다. 아울러 반민족 행위를 예비 조사하기 위해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①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 ②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을 비준하였다.
-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 ④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 ⑤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정답: ④

* 제헌 국회(1948.5~1950.5)

1948년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 총선거는 대다수 국민의 참여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부 지역(4·3 무력항쟁으로 2개 선거구 불능, 1년 뒤 선출)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보통·직접·평등·비밀의 원칙에 따라 신성한 표를 행사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7.17).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15).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1948.9), 반민특위(1949. 1~8)가 활동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고,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1950.3~1957)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국회는 6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운영되었다.

② 노무현 정부 때에 한미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이 체결되었다.

③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 야욕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 후 사사오입의 해괴한 논리로 다시 통과되었다(1954.11).

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제정한 유신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1/3을 통일주체국민회에서 선출하였다(대통령이 추천 -> 유신정우회 의원).

46.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 ② 재미 한인들 중심으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 ③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④ 민족 자주 연맹을 이끌고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 ⑤ 일제의 패망과 건국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정답: ④

* 김규식(1881~1950)에 대하여

호는 우사(尤史). 미국에서 공부하여 서양 문물에 익숙하였다. 1918년 8월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파리강화회의의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1919.1), 김원봉과 함께 민족혁명당(1935.7)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으며(1944), 유럽·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 활동의 선봉에 섰다.

광복 후에는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앞장섰으며,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정론이 제기되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함께 중도 우익 세력을 이끌고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여 미 군정의 지지를 받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에 선출되었다(1946.12).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의 실패 후, 좌우합작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점자본주의도 아닌 무산계급독재사회도 아닌 제3의 길을 채택한 민족자주연맹을 1947년 12월에 결성하고, 1948년 4월 남한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여 김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정계를 떠났고 6.25 전쟁 중 납북되어 사망하였다.

① 김원봉(1898~1958)은 일찍이 개인 의거 중심의 의열단(1919)을 이끌었으며, 황포군관학교(1925)에 입교하여 교육받은 후, 정당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1935)을 조직하고 무장부대로는 조선의용대(1938)를 조직하였다.

③ 안창호(1878~1938)는 일제시대의 실력양성(무실역행)을 주창한 대표적 독립 운동가로 1907년 양기탁 등과 함께 비밀조직인 신민회를 결성을 주도하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한일합방 이후 신민회가 해산되자, 1912년 미국에서 흥사단을 창설해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④ 이회영(1867~1932): 일찍이 신민회 회원으로 동생 이시영 등과 함께 엄청난 재산을 정리하고 남만주(서간도) 삼원보에 독립기지를 개척하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에 앞장섰고

⑤ 여운형(1886~1947)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건국을 준비하였고,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였다(1945.8).

47.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을 한쪽 편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쪽으로 하는 아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보기>

- ㄱ. 포로 송환 문제로 인해 체결이 지연되었다.
- ㄴ.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 ㄷ.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였다.
- ㄹ.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조정할 애치슨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휴전협정(1953.7.27.)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이 1951년 3월 이후 38선 부근(서울-개성)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6월 소련의 제안에 따라 미·소 양국은 휴전 회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중국군 및 북한군은 1951년 7월부터 정전 회담을 개최하였다. 처음에는 그해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하였는데, 10월에는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38선이 아닌 전선을 기초로 한 휴전협정이 진행되었다.

회담은 2년 이상 장기화하였고 파란곡절을 겪었다. 이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인데, 초기에는 군사분계선(휴전선) 설정을 38도선을 경계로 하자는 공산측과 현재의 접촉선으로 하자는 유엔측이 맞선 문제가 있었으나 1951년 11월에 유엔측의 주장대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후 전쟁포로 송환문제를 놓고서 포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유엔측), 본국으로 강제송환(공산측) 원칙이 맞았고,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공산측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2회에 걸쳐 총 9개월간이나 회담을 중지하였다(최종적으로 본국 송환거부 포로는 중립국행으로 결정). 또한 전쟁 막판(1953.6.18.)에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바람에 회담이 중지되었으나, 유엔측이 한국군이 휴전회담을 준수하겠다는 약속 보장을 함으로써 수습되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공, 유엔(미군) 대표가 판문점에 모여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 정전 위원회와 쌍방을 제외한 4개국(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중립국 감독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현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고, 분계선에서 남북 각각 2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남북 분단선인 38선은 휴전선으로 대체되었다.

㉠ 1948년 8월과 9월에 남한과 북한에 정부가 수립됨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었다.

㉡ 1950년 1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며 북한의 대남침략 야욕을 가속화시켰다.

48. (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사형 집행 소식에 모욕하는 유가족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8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가) 정부 시기 국가 전부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제4호에 따라 서도원·도예종·여정남을 포함한 다수 인사들을 체포하여 사형·무기 징역 등을 선고한 사건이다. 특히 판결 확정 후 1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형 선고 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②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 ③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다.
- ④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였다.
- ⑤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정답: ②

* 박정희 유신 체제 시기의 역사적 사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선언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직후인 10월에 유신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7차 개헌)을 국민 투표로 확정짓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유신 헌법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35조에 규정한 헌법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하고, 국회의원의 1/3을 선거하고(대통령이 추천 -> 유신정우회 의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였다. 특히 긴급조치권을 이용하여 민청학련(1974.1) 사건, 인혁당 재건 사건(1974.5, 대법원 사형 선고 18시간만에 전격 집행)에서 학생, 지식인 등 진보적 인사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일어나자, 이를 문제삼아 여당과 정부는 신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는 동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부마 민주 항쟁)을 야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온 진압 대립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는 붕괴를 되었다.

①, ⑤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1953.7) 직후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 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내용의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을 체결한 공(功)도 있지만,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진보당을 해산하고(1958), 당수 조봉암 등을 간첩 혐의로 전격 처형하는(1959) 과(過)도 있었다.

③ 김영삼 정부는 경제의 투명화를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다(1993).

④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전두환)를 조직하여(5.31) 국가 주요 조직을 장악해 나가며, 비판적인 언론인, 학자 등을 해직시키고 언론사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삼청교육대(1980.8~1981.1) 운영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다.

49. 밑줄 그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 ③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 ④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 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답: ③

* 6월 민주항쟁(1987)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연세대생 이한열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당대표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①, ⑤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4.19 시민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정권은 붕괴하고, 내각책임제 개헌 후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1960.8)

②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과정에서 굴욕적 한일협정 회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자, 서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6.3 사태(1964)가 발발하였다

④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50.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 ④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⑤ 이산 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정답: ①

*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었고(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1)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노태우 정권(1988.2~1993.2) 때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핵위기 속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되었고(1994.7),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1994.8).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1995년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2006년 이후 중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1998.2~2003.2)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해로)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개성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 입주),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 이산가족 상봉(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합의, 8월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단 방문) 등이 실현되었다.

노무현 정권(2003.2~2008.2)은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개성공단 입주(2004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고(2003년 9월),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였다.